

鄧小平體制的 軍事專門化政策

金 大 熙

- | | |
|-------------------|--------------|
| I. 序 言 | IV. 軍事原則의 變化 |
| II. 機能的 專門化 推進 | V. 結 言 |
| III. 軍幹部에 대한 人事改編 | |

I. 序 言

中共의 人民解放軍은 創軍以後, 高度로 政治化된 集團으로서 광범위한 非軍事的 役割을 담당하면서 成長해 왔다. 이는 中共軍이 革命鬭爭에서 體制樹立으로 이어지는 中共政治의 展開過程에서 實質的인 政治勢力으로 활동한 結果이다. 그러나 비록 中共軍이 지니는 高度의 政治性이 革命完 遂 및 體制維持에는 肯定的인 作用을 했다 하더라도, 政治發展에 있어서 는 黨·軍間의 葛藤深化와 國家組織體制的 混亂을 조장하는 등의 否定的인 結果만을 초래함으로써 國家發展을 阻害하는 根本的인 要因이 되었다. 특히, 中國을 攬관과 극심한 權力鬭爭의 도가니로 몰아 넣었던 文化大革命은 中共의 人民解放軍이 지니고 있던 政治的 影響力과 그것이 現實과 결부됨으로써 나타난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가 된 다고 하겠다.

中共의 軍部가 重要的 政治的 集團으로 登場하게 된 것과 관련하여 대 체로 다음과 같은 네가지의 원인을 지적할 수 있다. 첫째, 革命鬭爭期 以後, 中共에서는 典型的으로 黨과 軍이 一體化되어 있음으로 하여 軍指導 部와 黨政治部의 区分이 不明確하였다. 둘째, 毛澤東의 建軍思想에 근거

해 볼 때, 軍은 戰鬪隊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生産隊이기도 하고 政治工作隊이기도 했으므로 그만큼 中共軍의 役割은 多樣해질 수밖에 없었다. 세째, 毛澤東은 軍이 지니고 있는 武力的 效率性을 自身の 權力維持 및 權力擴大의 決定的 道具로 삼아왔다. 네째, 中共의 政治體制가 制度化되어 있지 못했기 때문에 人的 要素에 의하여 좌우되는 政治派閥間의 葛藤이 深化되어 왔고, 그것은 權力鬪爭으로 이어짐으로써 軍部로 하여금 政治에 介入토록 하는 토대가 되었다. 결국, 이렇게 볼 때, 制度的으로나 理念的으로 中共에 있어서 軍의 政治化는 당연한 歸結이었다고 밖에 말할 수 없다. 그러나 軍部の 政治的 影響力 行使가 當爲의인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國家發展을 저해하는 要素가 되는 限, 根本的으로 制限되어져야만 하였다.

따라서 文革以後의 혼란한 政局을 수습하는 過程에서 報權하게 된 鄧小平體制는, 과거의 과오를 청산하고 보다 發展된 未來로 나아가기 위해서 國家的 次元에서의 現代化計劃이 수립·집행되어야 한다는 國家的 目標과, 現代化推進을 위한 강력한 지지세력확보 및 권력의 정당성확립이라는 政治的 課題를 해결하기 위하여는, 그동안 가장 강력한 政治勢力으로 活動하였던 軍部를 본연의 임무에만 충실케 함으로써 政治圈으로부터 除外시키는 제반조치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간주하였다. 이에 鄧小平體制는 ‘以黨治軍’ 原則의 공고화 및 國防의 現代化 등을 골자로 한 일련의 政策을 推進하고 있는 바, 그것은 소위, ‘軍事專門化政策’ 으로 구체화되고 있다.

따라서 本考에서는 ‘第2의 革命’으로 불리우는 鄧小平體制의 改革政策에 대한 分析의 一環으로서 ‘軍事專門化’와 관련된 諸般政策과 그것에 內在되어 있는 意味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以下에서는 軍事專門化政策이 ‘專門化, 抵齡化, 現代化’라는 內容으로 表出되고 있음에 따라 구성상 機能的 專門化 推進, 軍指導層에 대한 派閥調整 및 新進改革勢力의 登庸, 軍事原則修正과 國防現代化 등 세 부분으로 나누어 고찰한다.

II. 機能的 專門化 推進

中國共產黨은 革命過程에 있어서 유격전에 근거한 武裝鬭爭을 革命戰略의 기본으로 삼았기 때문에 中共軍은 設立初期부터 고도의 政治的 機能을 지니고 있었다. 그들은 對內外的으로 國民黨軍과 日本軍의 무력적인 공격에 대항해야 하는 軍事的 業務 뿐만 아니라 농민동원과 대중선전 및 政治 思想教育 등의 다양한 非軍事的 革命課業을 수행하였던 것이었다.¹⁾ 그들의 政治性은 黨에 의해 부여된 것이었고, 그것은 열세한 무력으로 보다 우세한 對內外的 敵에 대항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었다. 中共軍은 中共 建立直後の 統治體制 整備過程에서도 중요한 정치적 역할을 담당하였다. 그들은 새로운 黨體制와 政府의 統治機構가 全國的으로 수립되어 활동을 개시할 때까지 軍政委員會를 통하여 中共의 대부분을 통치하는 실질적인 통치기관으로서 活動하였다. 더우기, 地方行政機構가 業務를 시작한 후에도 行政職의 대부분을 軍에서 충원시킴으로써 軍은 막강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였다.²⁾ 軍의 광범위한 政治的 役割은 文化大革命 수습과정에서도 분명하게 나타났다. 中共軍은 질서회복과 폭동진압을 위하여 투입된 후, 기능이 정지된 省以下の 黨組織과 政府機關을 대신하기 위하여 組織된 革命委員會를 장악함으로써 실질적인 權力體로 成長하게 된 것이었다.³⁾

이상과 같은 일련의 政治過程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 軍의 政治的 性格은 中共에 있어서 黨과 軍이 고도로 一體化되어 왔다는 점과, 中國共產黨

1) A. Doak Barnett, *Uncertain Passage: China's Transition to the Post-Mao Era* (Washington: The Brookings Institute, 1974), pp. 68~71.

2) John Gittings, *The Role of the Chinese Army*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1967), Chap. 6.

3) 金善亨, 「中共軍의 政治的 機能에 關한 研究」(서울: 東國大學校 大學院, 1978), pp. 60~91.

中央委員會의 正委員에 군지휘관이 1/3 이상 임명되어 왔다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당연한 것이었다.⁴⁾ 더우기 당의 政策決定權과 군통수권이 黨主席이었던 毛澤東의 개인적 지도력에 속해 있었던 관계로 軍의 政治性은 根本적으로 제한될 수 없었으며, 그렇기 때문에 黨과 軍의 기능적 역할분담도 분명해질 수 없었다. 요컨대 鄧小平體制가 등장하기 前까지 中共軍은 기능적으로 '革命軍'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했다고 말할 수 있다.⁵⁾

鄧小平體制는 軍이 政治的 役割을 과도하게 行使한 것은 黨과 軍사이의 기능적 전문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일 뿐만 아니라 軍에 대한 黨의 統制가 효율적이지 못하였기 때문이라는 인식하에 이를 극복하는 方向으로 政策을 실시하고 있다. 具體적으로 鄧小平體制는 黨章의 改正과 黨·政·軍에 대한 機構調整作業을 통하여 軍에 대한 黨·政 統制의 효율성을 提高시키고 있으며, 軍幹部教育和 軍事訓練을 강화시킴으로써 軍事的 專門能力을 고양시키는 한편, 減軍政策을 통하여 軍의 對社會的 機能을 축소시키고 있다.

4) 中央委員會 正委員構成에 있어서 民·軍의 比率을 살펴 보면 옆의 表와 같다. 보다 자세한 內容은 William Pang-

	文民의 數 (比率)	軍人의 數 (比率)
7期(1945)	22(50%)	22(50%)
8期(1956)	57(63%)	34(37%)
9期(1969)	47(35%)	87(65%)
10期(1973)	63(66%)	32(34%)
11期(1977)	71(71%)	29(29%)

Yu Ting, "The Chinese Army," in Jonathan R. Adelman ed., *Communist Armies in Politics* (Boulder: Westview Press, 1982), pp. 39~40 參照.

- 5) 鄧小平體制 以前에 軍을 專門化시키기 위한 努力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韓國戰爭 參戰을 계기로 國防部長 彭德懷는 軍의 專門化를 주장하며 제반조치를 취했으나, 그의 시도는 派閥의 路線鬭爭에 휘말려 1958年의 '廬山會議'를 기점으로 와해되고 말았다. 자세한 內容은, John Gittings, *op. cit.*, Chap. 7&8; Ellis Joffe, *Party and Army: Professionalism and Political Control in the Chinese Official Corps, 1949~1964* (Cambridge: East Asian Research Center, 1971), pp. 49~64 參照.

1. 黨章改正과 機構調整

1982년에 制定된 新黨章程에서 주목해야 할 두가지 사항은 國家中央軍事委員會 新設과 이제까지 黨總書記가 지니고 있던 軍統수권 제한이다.⁶⁾ 新黨章程에 國家中央軍事委員會의 新設을 明文化한 것은 軍에 대한 統制體系를 黨과 政府로 二元化시켜 統제의 효율성을 기하고 軍의 政治介入과 軍事政策의 수립과 집행에 있어서의 파벌간의 대립이라는 폐단을 구조적인 차원에서 해소하려는 의도로 이해된다. 따라서 國家中央軍事委員會는 軍部에 對한 堅制 뿐만 아니라 여러 國防産業들과 國防關係委員會들 간의 조정역할을 담당하는 동시에 黨中央軍事委員會의 전략적 결정에 따라 세 부적인 進술을 결정·집행하는 기능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⁷⁾

한편, 新黨章程에서는 黨主席이 人民解放軍의 主席이 되어 온 관행을 깨고 黨主席職을 黨總書記로 대체하면서 黨總書記의 軍主席職 接임을 금지하였다. 이는 黨·軍의 기능적 분리와 각 조직간의 견제·균형을 기하려는 鄧小平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판단된다.

黨章改正과 더불어 鄧小平體制는 1982年 5월에 全國人民代表大會 常務委員會의 機構改革에 관한 決定을 실행에 옮기기 시작하였다.⁸⁾ 機構改革의 목적은 黨·政·軍의 기구를 정리·통합하여 간소화시킴으로써 각 부분의 기능을 確연하게 구분하는 동시에 비대해진 人員을 減임으로써 각 부분의 專門성을 높이는 데에 있는 것이다.

우선적으로 同年 5月 4日, 國務院에 대한 대폭적인 기구축소와 減員조치가 실시되었다. 副總理(副首相) 13名을 2名으로 減였고 副部長(次官)을 10名에서 3~5名 水準으로 減축시키는 한편, 52개 部處를 41개로 減

6) Alastair I. Johnston, "Changing Party-Army Relations in China, 1979~1984," *Asian Survey*, vol. XXIV no. 10 (October 1984), pp. 1020~27.

7) 簡鐵, "對中共設立國家軍委之研究," 「匪情月報」, 第25卷 第11期 (1983年 5月), pp. 29~35.

8) 崔榮, 「中共政治軍事論」(서울: 一志社, 1983), pp. 375~6.

소하였다. 또한 總理(首相)의 위임업무를 진담하는 副總理級의 國務委員 制를 新設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였다. 國務院에 대한 기구조정작업에 이어 黨中央의 散下機關에 대한 기구조축도 단행되었다. 30여개에 달하는 직속기구를 25개 수준으로 줄였으며, 각 직속기구 副部長을 6~9명에서 2~4명으로 감원시킴으로써 해당기구의 행정인원을 37% 감원하는 효과를 거두었다.

國務院과 黨機構에 대한 기구조정작업이 단기간에 효과적으로 진행된 것과는 對照的으로 軍機構調整作業은 점진적으로 추진되었다. 그 이유는 軍組織이 黨이나 行政組織보다 광범위하고, 각 조직은 軍內의 派閥과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으며, 아직까지 '實用主義路線'에 반대하는 派閥이 軍內에 잔존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軍組織改編作業은 軍部內의 派閥調整 및 軍부에 대한 人事改編作業과 並行되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鄧小平體制的 軍에 관한 機構調整作業은 減軍 및 職業化를 통한 軍事的 專門性 고양과, 軍統制 強化와 派閥調整을 통한 정치적 영향력 제한의 두 가지 方向으로 推進되고 있다.⁹⁾ 1982年 6月の 國防科學·技術工業委員會의 設立, 1982年에서 1984年 사이에 실시된 특수부대의 국무원 이관작업 등은 前者에 해당하고, 1985年の 軍區調整과 軍간부의 저령화정책 등은 後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2. 軍事教育訓練의 強化

軍事教育制度和 訓練體系에 對한 改善의 必要性은 1978年 6月 2日에 소집된 '全軍政治工作會議'에서부터 제기되기 시작하였다. 당시 鄧小平은 軍事와 관련된 새로운 역사적 조건을 제시하면서,

“軍隊에 관해 말하자면 長期的 戰爭環境으로부터 平和環境으로 전환되었으며

9) Wolfgang Bartke & Peter Schier, *China's New Party Leadership* (London: Macmillan Press, 1985), pp. 45~73.

시간, 조건,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해결방법도 전과는 달라야 한다. 즉 간부, 병사들이 새로운 상황에 직면하였으므로 새로운 내용으로 교육하지 않으면 안된다.”¹⁰⁾

라며 教育制度的 改善을 강조하는 한편,

“現存하는 問題는 결코 간부가 너무 많다는 것이 아니다. 바로 각 전문분야를 이해하는 전문가가 너무 적다는 것이다. ……어떤 분야에서나 나이의 高下를 막론하고 스스로 배우려고 해야 하며 배울 수 없거나 배우려 하지 않는 자는 정리될 수밖에 없다. 금후의 간부선택은 특별히 전문지식을 중시해야 한다.”¹¹⁾

라며 軍幹部에 대한 專門技術教育의 強化를 주장하였다.

이에 鄧小平體制는 우선적으로 軍政學校, 軍政學院, 軍政大學으로 이루어진 軍·政 合一體의 教育체제를 개조하여 軍事學院, 政治學院, 後勤學院 등을 설립함으로써 教育의 分業化를 도모하였다. 또한 200여개에 달하는 軍事學校를 開設하는 同時에 教育內容도 初·中·高級·綜合의 4단계로 구분하여 軍의 質的 向上을 꾀하고 있다. 더우기, 1983年 9月에는 4년제 사관학교제도를 도입하고, 1984年 2月에는 대졸간부후보생제도를 新設하였을 뿐만 아니라 1985年 12月에는 1978年에 개편된 軍事學院, 政治學院, 後勤學院 등 3개 학원을 통폐합하여 國防大學으로 改編하는 등의 구체적인 制度調整作業을 통하여 고급간부양성과 전문능력배양을 위한 軍事教育을 실시하고 있다.¹²⁾

한편, 訓練體系도 改革하여 1981年부터는 종래 보병위주의 單一兵種·兵士 위주의 훈련에서 戰車 混成軍의 合動軍事幹部 위주의 훈련으로 전환하였다. 또한 더 나아가 1986年부터는 現代戰 條件下의 諸軍兵種 合動作 戰能力을 提高시키는 동시에 훈련수단의 현대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

10) 鄧小平, 「鄧小平文選」(北京: 人民出版社, 1982), pp. 108~9.

11) *Ibid.*

12) 朴東碩, “中共의 國防現代化와 軍事幹部教育,” 「中蘇研究」, 第9卷 第3號 (1985年 가을), pp. 51~79.

하는 등, 全軍이 共同的으로 現代戰에 대응할 수 있는 훈련강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¹³⁾ 요컨대, 鄧小平體制의 軍事教育訓練은 i) 初級幹部를 포함한 全軍幹部의 現代戰에 관한 知識水準과 組織·指揮能力의 提高, ii) 現代的 條件下에서의 '人民戰爭'의 戰略·戰術 適用方法 研究, iii) 各軍, 各兵種의 合動軍事訓練의 強化, iv) 新軍事科學·技術의 習得 등 네 가지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서,¹⁴⁾ 결국은 軍의 機能的 專門化를 推進하기 위한 여건조성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3. 兵力減縮政策

鄧小平體制는 軍事專門化를 能率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는 비대한 軍을 간소화시키는 것이 선결되어야 할 과제라고 인식하였다.¹⁵⁾ 실제로 中共軍의 兵力數는 毛澤東死後의 정치적 공백기를 이용한 地方軍의 독자적인 병력증강에 힘입어 1981년에 이르러서는 1975년의 325만명보다 약 120만명이 증가한 475만명에 달하였던 것이다.¹⁶⁾ 이러한 軍兵力의 증가는 國防現代政策에 막중한 부담을 안겨줄 뿐만 아니라, 軍의 기능적 전문화를 저해시키고 體制의 安定化를 파괴시킬 수 있는 잠재적 무력세력이 될 가능성을 지니고 있었다. 따라서 軍事專門化에 있어서 兵力減縮政策의 실시는 절실한 것이었다.

이와 관련하여 鄧小平은,

“우리는 軍에 만연되어 있는 肥大하고, 散漫하고, 驕慢하고, 奢侈하고, 怠惰한 다섯가지 問題를 해결하여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各급 지도부와 영

13) 任東俊, “中共의 國防現代化 實態,” 「共產圈研究」, 1986年 12月號, pp. 41~51.

14) 汪學文, “中共軍事教育與軍事現代化之關係,” 「匪情月報」, 第26卷 第5期 (1983年 11月), pp. 47~52.

15) 簡鐵, “論中共軍隊之精簡問題,” 「匪情月報」, 第26卷 第9期 (1984年 3月), pp. 59~63.

16) 伊達實義, “中共軍의 現代化와 兵力削減問題,” 「共產圈研究」, 1985年 7月號 pp. 125~130.

도기구 등의 기구를 간소화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軍兵력을 적정 수준까지 減縮시켜야 할 것이다.”¹⁷⁾

라고 언급함으로써, 병력감축의지를 강력하게 시사하였다.

兵力減縮은 세가지 方向으로 進行되었다. 첫째, 우선적으로 軍內의 기
울심사를 강화하여 고�령의 兵士나 鄧小平이 지적한 5가지의 경향을 보여
온 兵士 및 中·越戰爭時 두드러지게 나타난, 現代戰遂行을 위한 지식과
기능을 缺한 兵士 등을 감원하였다.¹⁸⁾ 둘째, 1978년부터 시행되어 오던
軍事服務規定修正案의 계급정년제도와 현역복무연령제를 더욱 엄격하게
적용함으로써 다수의 人民解放軍 幹部를 감축시켰다.¹⁹⁾ 세째는 軍機構調
整을 통한 減軍措置로서 現體制가 중점적으로 推進하고 있는 兵力減縮政
策이다. 鄧小平體制는 1982年 6월에 國務院散下의 國防工業研究所, 軍의
國防科學·技術委員會, 黨中央軍事委員會의 科學·技術·武器委員會 등 3
개 기구를 통폐합하여 全軍의 武器·裝備에 관한 研究와 生産을 관장하는
國防科學·技術工業委員會를 設立하였다. 또한 이와 함께 軍에 소속되어
있는 특수부대를 國務院散下의 行政機管으로 이관하였던 바, 1982년에 武
裝警察部隊를 國務院 직속의 人民警察隊로 再編成하였고, 1983年 8월에는
基本建設工程兵을 폐지하여 建設工社로 改編하였으며, 鐵道兵도 1984
年 1月 1일에 國務院의 鐵道部로 竝合시켰다. 以上の 軍機構改編作業은
약 100萬名의 兵力을 減縮시키는 效果를 낳았다고 한다.²⁰⁾

鄧小平體制는 이와 같은 일련의 兵力減縮政策을 통하여 1985年 기준으

17) 鄧小平, *op. cit.*, pp. 15~24.

18) David Bonavia, "Make Transistors, not War is the New Battle-cry," *Far Eastern Economic Review*, March 21, 1985, p. 70; 金東成, "中共의 軍事政策變化와 國防現代化," 慶南大學校 極東問題研究所編, 「中共의 改革政治」(서울:慶南大學校 出版部, 1985), p. 180에서 재인용.

19) 이 조치를 통하여 1982年 한해동안 약 3萬名에서 4萬 5千名에 달하는 人民解放軍의 幹部가 退役하였다고 한다. *Ibid.*

20) 任東俊, "中共의 減軍計劃 全貌 解剖," 「共產圈研究」, 1985年 9月號, pp. 96~108.

로 약 300만명선까지 人員을 삭감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러나 鄧小平體制는 이에 머무르지 않고 次後에 戰鬪部隊內에서도 兵力을 減員시킴으로써 1960年代 수준인 200만명 정도를 유지한다는 방침을 세워두고 있다.²¹⁾

鄧小平體制의 減軍政策은 軍의 對社會的 機能 制限, 黨에 의한 軍의 효율적 統制, 軍의 政治介入 가능성 감소 등의 效果를 가져오기 때문에 結果的으로 中共軍의 기능적 전문화를 촉진시키는 政策이라고 評價할 수 있을 것이다.

Ⅲ. 軍幹部에 대한 人事改編

일반적으로 극히 불안정한 政治體制內에서의 政治指導者들은 자신의 이익과 개인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하여, 또는 권력탈취와 권력보존을 위하여 각기 派閥을 형성하여 權力을 쟁탈하거나 유지하려 한다. 그리고 아직 制度化되지 않은 社會에서 강력한 권력기반을 가진 軍指導者는 불가피하게 정치무대에 참여하게 될 뿐만 아니라 중요한 政治的 役割을 담당한다.²²⁾

鄧小平體制가 등장하기 이전까지의 中共政治狀況은 이러한 現狀을 실증적으로 보여주는 좋은 예가 된다. 中共의 統治體制는 歷史的으로 制度化의 비중이 낮고 人的 要素가 정치운영을 주재하는 특색을 지니고 있었다. 이것은 毛澤東統治時代의 政治的 動向이 毛澤東 개인의 기호에 따라 決定

21) 人民解放軍의 兵力減少趨勢는 아래의 表와 같다. *Ibid.*, p.104에서 재인용.

구 분	1950	1966	1975	1981	1982	1983	1984	1986
병 력 (만 명)	435	248	325	475	423	410	323 (추정)	223 (추정)

22) Samuel P. Huntington, *Political Order in Changing Societies*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68), Chap. 4.

되어 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中共의 政治過程은 派閥間的 反目과 葛藤으로 점철되어 오는 양상을 보여 주었으며 中共軍의 지도자들도 자신의 필요와 이념에 따라 각기 다른 政治派閥에 가담하거나 새로운 派閥을 형성하기도 하였다.²³⁾ 그럼으로써 中共軍은 막강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해 왔던 것이다. 그러나, 中共軍의 지도자들은 이때까지 하나의 단결된 세력을 형성한 일이 없이 派閥의으로 政治領域에 參與해 왔다. 그러한 現狀은 中共軍의 政治에 대한 見解를 혼란시키고 분열시키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한층 더 나아가 特定の 政治勢力과의 파벌적 結탁을 통한 政治派閥을 형성함으로써 黨·軍關係의 혼란을 조장해 왔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中共軍의 政治的 影響력을 증대시키고, 政治派閥間的 葛藤을 조장해 온 軍內的 派閥은 中國共產黨이 抗日戰에 가담하는 과정에서부터 形成되기 시작하였다.²⁴⁾ 抗日戰期間동안 中國共產黨은 統治地域이 확대되어감에 따라 地方組織 특히 軍事組織을 지역적으로 分權化시켰는데, 分權化된 각 組織은 점차로 다섯개의 독립적인 紅軍의 分派를 이루게 되었다. 이들 다섯개의 分派는 1947년에 5개의 野戰軍으로 編成되었고, 각 野戰軍은 國家體制가 정비될 때까지 軍政委員會를 통하여 6개의 大行政區를 거의 독립적으로 統治하였다. 그후 野戰軍體制는 1954年 軍區制로 대체되면서 형식상으로는 해체되었으나 각 野戰軍勢力은 政治性을 띤 軍內派閥로 남아있었다. 따라서 그들간의 연합과 반목은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中共政治의 최대변수로서 作用하였던 것이다.

中共軍 派閥의 核心이 되는 5개 野戰軍이 관할하였던 6개 大軍區와 軍區司令員 및 軍政委員會의 人物을 紹介하던 <表 1>과 같다.²⁵⁾

23) Ellis Joffe, "Party and Military in China: Professionalism in Command?" *Problems of Communism* (Sep.~Oct. 1983), pp. 48~63.

24) William W. Whitson, *The Chinese High Command* (N.Y.: Praeger, 1973), Chap. 2.

25) 5個 野戰軍의 人脈은 中共의 政治를 理解하는데 있어서 重要的 變數가 된다. 보다 자세한 內容은, Theodore Shabad, *China's Changing Map, National and Regional Development, 1941~71* (N.Y.: Praeger, 1972), p. 25 參照.

〈表 1〉

	軍 政 委 員 會			
	大 軍 區	司 令 員	主 席	副 主 席
第 1 野戰軍	西 北 軍 區	彭德懷·王震	彭 德 懷	習 仲 勳
第 2 野戰軍	西 南 軍 區	劉伯承·賀龍	劉 伯 承	鄧小平·賀龍
第 3 野戰軍	華 東 軍 區	陳 毅	饒 漱 石	陳 毅
第 4 野戰軍	中 南 軍 區	林 彪	林 彪	葉 劍 英
第 5 野戰軍	東 北 軍 區	高 崗	高 崗	—
華 北 兵 團	華 北 軍 區	聶 榮 臻	董 必 武	蔣 一 波

資料出處：李炳柱，「現代中國論」(서울：청람，1983)，pp. 274~5.

鄧小平體制 以前の 政治狀況이 派閥間的 反目과 對立으로 얼룩져 있다 鄧小平體制 以後에는 政治派閥間的 갈등이 근본적으로 억제되는 方向으로 나아가고 있다 하겠다. 鄧小平은 毛澤東時代의 派閥的 政治狀況과 그 개인의 뼈저린 歷史的 敎訓속에서 軍權을 장악하고 軍派閥의 政治介入 可能性을 배제시키는 것이 정권유지와 체제안정화를 기하는 첩경이라는 사실을 잘 인식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는 軍部の 派閥造成을 억제하고 자신의 지지기반을 강화시키기 위하여 軍幹部에 대한 人事改編에 중점을 두고 軍事專門化政策을 추진하고 있다. 鄧小平體制的 軍幹部 人事改編 作業은 1984 年에 개최된 ‘軍事委座談會’를 기점으로 하여 두단계 구분할 수 있다. 첫번째 단계는 體制的 지지기반을 확보하기 위한 軍派閥의 調整 段階이고, 두번째 단계는 체제의 공고화와 군권이양을 위한 新進改革勢力의 登庸段階이다.

1. 軍派閥의 調整

小鄧平體制的 軍幹部에 대한 人事改編作業은 高齡의 軍幹部를 일선에서 퇴진시키는 同時에 改革政策을 지지하는 新進勢力을 등용함으로써 軍指導 部의 세대교체를 이루는 것이다. 그러나 現實의 으로 세대교체작업을 급격히 추진한다면 본래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結果가 초래될 우려가 있었다.

왜냐하면, 鄧小平體制的 급진적 改革政策에 반대하는 保守勢力이 年老한 軍幹部들을 中心으로 形成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즉 지휘부의 세대교체는 지휘권의 약화와 군부의 반발을 야기시킬 가능성이 있었다. 때문에 鄧小平體制은 우선적으로 派閥調整을 통한 軍部の 지지확보단계를 設定하였다.

여기서 鄧小平體制은 구체제의 좌파인사를 보수인사로 대체함으로써 군의 혼란을 방지하고, 다시 보수인사를 체제를 지지하는 第2野戰軍系 人物로 서서히 대체함으로써 지지기반을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을 세웠다.²⁶⁾ 즉, 세대교체에 의한 ‘軍權讓渡’의 전초단계로서 軍권의 확대를 꾀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鄧小平은 자신이 黨과 國家의 中央軍事委員會의 主席에 앉는 동시에 楊得志로 하여금 자신의 후임으로 總參謀長의 자리에 앉도록 하였다. 또한 1982年 9月에는 中共軍 左派의 거물인 韋國清 政治部主任을 해임하고 華北兵團 出身인 余秋里로 하여금 그 職責을 담당토록 하였다. 더우기 耿飈國防部長을 해임하고 張愛萍에게 그 직책을 맡김으로써 軍部內의 野戰軍勢力配定을 통한 派閥調整作業에 박차를 가하였다.²⁷⁾

鄧小平의 派閥調整을 위한 人事改編作業은 1983年末에 이르러 어느정도 완료되었다. 1983年을 기준으로 黨中央軍事委員會委員²⁸⁾과 軍의 지휘 중추인 總參謀部の 構成員 및 11개 一級軍區의 司令員들의 年齡과 舊野戰軍構成을 정리하면 <表 2>~<表 4>와 같다.

<表 2>~<表 4>의 內容을 종합해 볼 때, 연령미상자를 제외한 총 32명의 平均年齡은 76.6세였고, 중복된 人物을 제외한 자 구야전군별 구성인

26) 熊銳, “年來中共軍事頭目調動之分析,” 「匪情月報」, 第24卷 第1期(1981年 7月), pp. 35~41.

27) 俞雨霖, “中共軍의 幹部移動과 鄧小平,” 「共產黨研究」, 1986年 10月號, pp. 22~34.

28) 國家中央軍事委員會의 委員은 대체적으로 黨中央軍事委員會와 중복되기 때문에 생략하였다.

〈表 2〉

黨中央軍事委員會委員

職 位	姓 名	年 齡	舊 野 戰 軍
主 席	鄧 小 平	79	2 野 兵 團
副 主 席	葉 劍 英	85	華 北 野 兵 團
"	劉 伯 承	91	2 野 兵 團
"	徐 向 前	81	華 北 野 兵 團
"	聶 榮 臻	84	華 北 野 兵 團
常 務 委 員	許 世 友	77	3 野 兵 團
"	王 震	75	1 野 兵 團
"	粟 裕	76	3 野 兵 團
"	楊 得 志	73	華 北 野 兵 團
"	韓 先 楚	70	4 野 兵 團
"	楊 勇	75	2 野 兵 團
"	王 平	72	華 北 野 兵 團
"	蕭 克	76	4 野 兵 團
"	陳 錫 聯	70	2 野 兵 團
"	耿 飈	80	華 北 野 兵 團
"	楊 尚 昆	76	不 明
"	張 廷 發	未詳	2 野 野
"	韋 國 清	77	3 野 野
"	張 愛 萍	73	3 野 野

資料出處：Wolfgang Bartke & Peter Schier, *op. cit.*, pp. 52~53.

〈表 3〉

總參謀部的 構成員

職 位	姓 名	年 齡	舊 野 戰 軍
總 參 謀 長	楊 得 志	73	華 北 野 兵 團
副 總 參 謀 長	楊 勇	75	2 野 野
"	張 愛 萍	73	3 野 野
"	李 達	81	2 野 野
"	伍 修 權	74	4 野 野
"	王 尚 榮	75	2 野 野
"	張 震	71	3 野 野
"	何 正 文	未詳	2 野 野
"	遲 浩 田	58	3 野 野
"	劉 華 清	未詳	2 野 野

資料出處：崔榮，「中共政治軍事論」(서울：一志社，1983)，p. 378에서 재인용.

〈表 4〉

一級軍區 司令員

一級軍區	司令員	年 齡	舊 野 戰 軍
北 京軍區	秦 基 偉	72	2 野
潘 陽 "	李 德 生	67	"
濟 南 "	饒 守 坤	未詳	3 野
南 京 "	向 守 志	68	不 明
福 州 "	楊 成 武	71	華 北 兵 團
廣 州 "	尤 太 忠	69	2 野
昆 明 "	張 銓 秀	未詳	3 野
成 都 "	王 誠 漢	"	不 明
武 漢 "	周 世 忠	"	"
蘭 州 "	鄭 維 山	"	2 野
우루무치 "	蕭 全 夫	69	4 野

* 우루무치 軍區는 新疆軍區가 改稱된 것임.

資料出處: 崔榮, “黨·軍關係”, 徐鎮英編, 「現代中國의 政治와 社會變動」(서울: 高麗大學校 亞細亞問題研究所, 1986), p. 160에서 재인용.

원은, 第1野戰軍 出身 1명, 第2野戰軍 出身 13名, 第3野戰軍 出身 8명, 第4野戰軍 出身 4名, 華北兵團 出身 7명이었다. 따라서, 鄧小平體制가 추진하고 있는 軍內 派閥間 葛藤調整作業이 원만히 수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鄧小平體制는 第1梯隊에 속하는 軍元老들이 軍指揮權을 장악하고 있는 狀況下에서 第2野戰軍 出身 軍幹部와 改革政策을 지지하는 第3野戰軍 및 華北兵團出身의 軍幹部를 중심으로 軍指導部를 形成함으로써 軍內的 派閥을 자파의 軍權 확보의 方向으로 조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특기할 만한 점은 林彪의 第4野戰軍系 指揮官들이 다시 중용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권력분배 현상은 文革以後 특이한 일이다. 그러나 이 역시 軍의 지지를 공고히 하기 위한 鄧小平의 의도가 개재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鄧小平은 林彪事件²⁹⁾以後 큰 정치적 타격을 받

29) 林彪事件에 관하여는, Harlen Jencks, *The Politics of Chinese Military Development: 1945~1977* (Michigan: University Microfilms International, 1982), pp. 355~373 參照.

아은 第4野戰軍系 指揮官들을 포섭하여 다시 軍의 主要職責에 등용함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스스로 改革政策에 동조하게 만들었을 것이다.

2. 新進改革勢力的 登庸

鄧小平은 일련의 軍派閥 調整作業이 軍권확보 및 공고화로 일단락 지워졌다는 판단하에 1984年 10月 25日부터 11月 2日 사이 ‘軍事委座談會’를 開催하여 軍指導部에 대한 전면적인 抵齡化作業을 推進하기 시작하였다.³⁰⁾ 그는 우선 3個 總部の 副職以下의 任員에 대한 세대교체작업을 전개하여 1984年 12月末에 이르러서는 3개 總部の 최고책임자를 제외한 모든 직책을 改革派에 동조하는 新進幹部로 대체하였다. (<表 5> 參照).

<表 5> 三總部の 新任責任者(1985年 現在)

總參謀部			總後勤部			總政治部		
職位	姓名	年齡	職位	姓名	年齡	職位	姓名	年齡
總參謀長	楊得志	75	部長	洪學智	72	主任	余秋里	71
副總參謀長	{徐惠滋	49	副部長	趙南起!	60	副主任	周克玉	50
"	徐信	65	"	宗順留	40	"	周文元	44
"	韓懷智	44	"	劉明璽	65	"	朱雲謙	69
"	何其宗	42	"	張彬	41			

資料出處：俞雨霖，“中共軍幹部移動과 鄧小平，”「共產圈研究」，1986年 10月號，p. 25에서 재인용.

또한 1985年 5月 23日부터 6月 6日 사이에 ‘中央軍事委員會擴大會議’를 開催하여 軍區調整計劃을 決定하였다.³¹⁾ 그것은 기존의 11개 一級軍區를 통합해서 7개의 大軍區로 축소시키는 한편,³²⁾ 1級軍區的 司令員과

30) 俞雨霖, *op. cit.*, p. 23.

31) 이 會議에서는 100萬名 가량의 추가감군조치도 決定되었다. *Ibid.*, pp. 26~27.

32) 11개의 1級軍區中 北京, 瀋陽, 廣州 3個 軍區는 그대로 존속시키고, 武漢과 濟南, 昆明과 成都, 福州과 南京, 蘭州와 우무무치軍區를 각각 濟南, 成

政治委員을 新進改革勢力으로 대체시킨다는 內容이었다. 이 계획이 실질적으로 집행됨으로써 다수의 젊은 軍幹部들이 軍指導部에 대거 진출하였다. (〈表 6〉 參照).

〈表 6〉 7개 一級軍區 司令員 및 政治委員(1985年 現在)

一級軍區	司 令 員		政 治 委 員	
	姓 名	年 齡	姓 名	年 齡
北 京 軍 區	奏 基 偉	74	楊 白 冰	60
瀋 陽 〃	劉 精 松	52	劉 振 華	70
廣 州 〃	尤 太 忠	71	張 仲 先	49
濟 南 〃	李 九 龍	56	遲 浩 田	60
蘭 州 〃	趙 先 樹	60	李 宜 化	52
成 都 〃	傅 全 有	55	萬 海 峰	66
南 京 〃	向 守 志	70	傅 奎 清	65

資料出處: *Ibid.*, p. 26.

〈表 5〉와 〈表 6〉을 살펴보면, 1984年 以後 中共軍의 高位職에 第3梯隊에 속하는 新進改革勢力들이 대거 대응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들은 모두 韓國戰爭以後, 文革以前에 입대한 專門軍人들로서 1950年代에 國防部長 彭德懷가 추진하였던 中共軍의 現代化過程³³⁾ 및 大躍進運動의 고통을 몸소 체험하였던 世代였다. 때문에 그들은 대체적으로 改革·開放政策에 대하여 동조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으며, 軍派閥의 영향을 비교적 적게 받는다고 하겠다. 따라서 軍指揮體制가 新進勢力으로 대체되어가면 갈수록, 鄧小平의 뒤를 이어 改革派를 주도해 나가는 趙紫陽·李鵬體制는 軍權을 확고하게 장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表 5〉와 〈表 6〉에서 볼 수 있듯이, 1985年 現在까지도 軍의 最高職을 第2野戰軍系의 軍元老들이 장악하고 있다. 이는 신진세력의 군

都, 南京, 蘭州로 합병하였다. 崔明, “中共의 權力構造: 制度的 接近,” 慶南大學校 極東問題研究所編, *op. cit.*, p. 36 參照.

33) 註 5)와 同一.

통솔능력이 한계적이라는 사실을 반영한다. 그러나 最近의 報道에 따르면 군수뇌부에 대한 人事改編이 단행되어 新進改革勢力이 대거 軍高位職에 임명되었다고 한다.³⁴⁾ 이렇게 볼 때, 鄧小平體制의 軍權掌握을 위한 政治派閥調整作業은 軍指揮部에 대한 세대교체로 큰 실효를 거두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Ⅳ. 軍事原則의 變化

1. 人民戰爭戰略

中共의 國防戰略의 要諦인 ‘人民戰爭戰略’은 革命鬭爭의 산물이었다. 中國共產黨은 상대적으로 우세한 國民黨軍과 日本軍의 공격에 효과적으로 대항하기 위하여는 정면으로 대결하는 正規戰·陣地戰보다는 게릴라持久戰이 적합하다고 인식하였다. 게릴라持久戰은 적군을 자기영역으로 유인한 후 병력(正規軍과 民兵)을 집중시켜 적군을 포위·섬멸하는 전술로서, 이것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강력한 武器와 裝備體系의 지원보다는 政治的·이데올로기의으로 무장된 中國人民의 지원과 農民의 동원이 필요하였다. 때문에 中國共產黨은 강력한 적의 공격에 대한 방어수단으로, 정신력이 강하고 이데올로기적으로 잘 훈련된 군대의 양성과 人民의 정치적 동원에 주의를 집중시켰던 것이다. 따라서, ‘人民戰爭戰略’은 기본적으로 전쟁의 승패는 물질적인 것보다는 인간적인 요소에 달려있다는 믿음에 바탕을 두고 形成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³⁵⁾

34) 1987年 11月 24日에 開催된 全國人民代表大會 常務委員會의 決定事項으로서, 國防部長 張愛萍의 後任에 賈其偉, 總參謀長 楊得志 後任에 遲浩田(62), 總政治部主任 餘秋里 後任에 楊白冰(62), 總後勤部長 洪學智 後任에 趙南記가 각각 임명되었다. 「朝鮮日報」, 1987年 11月 25日 字 參照.

35) Tony Saich, *China: Politics & Government* (Hong Kong: The Macmillan Press, 1981), p. 149.

이러한 歷史的 條件下에서 제시된 人民戰爭戰略은 毛澤東의 軍事理論에 의하여 보다 체계화된 軍事原則으로 發展하였다. 毛澤東의 軍事理論은 기계보다 人間이 중요하고 軍의 現代化보다 軍과 人民의 政治적 동원이 중요하다는 기본시각을 토대로 구성된 것이다.³⁶⁾ 그러므로 人民戰爭戰略은 根本的으로 대중동원과 함께 軍隊의 多目的 機能, 軍에 대한 政治的 支配, 무기에 대한 인민우선, 그리고 對外的인 役割에 대한 대내적 역할의 우선 등의 원칙에 의존하고 있다.³⁷⁾

人民戰爭戰略은 共產革命이 완료된 1949年 中共政權樹立後에도 中共의 現實에 가장 잘 부합되는 軍事原則으로 간주되었다. 그것은 곧 人民解放軍의 基本戰略思想으로 채택되면서 毛澤東과 多數의 人民解放軍 指揮者들에 의하여 그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었다. 또한 戰略의 적용범위도 國內問題에서 國際關係로까지 확대되어 나갔다.

그러나 1950年代初의 韓國戰爭과 1969年의 中·蘇武力紛爭의 結果에서도 알 수 있는 바와 같이,³⁸⁾ 人民戰爭戰略은 급격히 變化하는 國內外的 環境에 효율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는 限界性이 있었다. 即, 人民戰爭戰略은 核과 現代의 武器에 의존하는 國際的 軍事戰略에 융통적으로 대처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國內的으로도 現代의 戰爭方式에 대한 능동적 대응방안으로 제시되는 國防現代化의 理論的 토대가 되지 못하였던 것이다. 더우기 人民戰爭戰略을 중시하면 軍의 專門性보다는 革命性이 강조되어 軍의 政治的 役割은 증대되는 反面, 國防에 대한 열의는 감소되어 國際關係에 있어서 전략적 열세라는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이 있었다.

36) 毛澤東의 軍事理論에 관하여는, 金南編譯, 「軍事論」(서울: 녹두, 1985), pp. 211~217 參照.

37) 毛澤東의 軍事原則의 內容과 그에 對한 評價는, 簡鐵, “論當前中共對毛澤東‘十大軍事原則’之檢驗,” 「匪情月報」, 第24卷 第6期(1981年 12月), pp. 60~66 參照.

38) 中·蘇紛爭에 관하여는, 李泳禧, “中·蘇紛爭의 理解,” 李泳禧編, 「10億人の 나라」(서울: 두레, 1985), pp. 160~189 參照.

이러한 현실적 부적합성을 지니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毛澤東은 執權期間동안에 人民戰爭戰略을 기본으로 한 軍事原則의 根本的인 修正을 꾀하지 않았다. 蘇聯의 安保威脅에 직면해서도 戰術的 次元의 修正만으로 대처했을 뿐이었다.³⁹⁾ 오히려 毛澤東은 人民戰爭戰略을 권력유지 및 반대 세력제거의 이론적 근거로 삼아 이를 더욱 강조하는 입장을 견지하였다. 따라서 毛澤東執權時의 中共軍은 人民戰爭戰略의 교조화에 의하여 '國防軍' 이라기 보다는 '革命軍'의 특성을 지님으로써 고도의 정치성을 띤 집단으로 활동하였던 것이다. 결국, 軍事原則의 측면에서 볼 때, 毛澤東은 革命時代의 그림자에서 벗어나지 못하였다고 말할 수 있다.

2. 現代的 條件下에서의 人民戰爭戰略

鄧小平은 強大國, 특히 美國과 蘇聯에 대한 전략적 열세를 만회하여 國際的地位를 向上시켜야 한다는 國際戰略의 必要성과, 革命성을 강하게 지니고 있는 中共軍을 '國防軍'으로 대체함으로써 軍의 政治的 役割을 制限하여 軍에 대한 黨統制의 효율성을 제고시켜야 한다는 國內政治的 必要性을 동시에 충족시키는 方法은 새로운 軍事原則의 定立에 있다고 생각하였다. 그가 구상한 새로운 軍事原則은 종래의 人民戰爭戰略에 대한 강한 집착을 버림으로써 그것이 지니고 있는 현실적 부적합성을 극복하는 동시에 核과 고도의 첨단무기에 의존하는 現代戰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國防現代化를 촉진시키는 것이었다.⁴⁰⁾

그러나 現實的으로 中共軍의 現代化, 특히 武力의 現代化를 골자로 하

39) 이때 나온 戰術이 '反霸權主義 統一戰術'이다. 자세한 內容은, William R. Heaton, Jr., "The Defense Policy of the PRC," in Douglas Marray & Paul R. Vioti, eds., *The Defense Policy of Nations: A Comparative Study* (Baltimore: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1982); 金東成, *op. cit.*, p. 170.

40) June Teufel Dreyer, "China's Military Modernization," *ORBIS* (Winter 1984), pp. 1011~26.

는 軍事原則을 새로이 定立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다. 우선, 蘇聯이나 美國에 비하여 수십년 낙후된 中共軍의 武力수준을 일시에 그들과 동등한 수준으로 끌어 올릴 수는 없었으며, 國防보다는 農業과 工業 및 科學技術 分野에 대한 現代化가 더욱 절실히 요구되었기 때문에 급격한 軍事原則의 變化는 國家의 均衡의 發展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었던 것이었다.⁴¹⁾

그러나 보다 중요한 저해요인으로 지적할 수 있는 것은 軍內部에 잔존하는 保守勢力의 反撥이다. 中共軍內에는 毛澤東의 軍事思想에 입각한 人民戰爭戰略을 신봉하는 革命元老들이 상당수 남아 있었기 때문에 급격한 現代化를 촉진시키는 軍事原則은 이들의 強力한 反對에 부딪힐 소지가 있었다. 더욱이 40여년동안 주된 戰略概念으로 적용되어 오던 人民戰爭戰略을 하루아침에 무시할 수는 없었다. 따라서 鄧小平體制的 軍事原則은 軍의 革命化와 現代化를 동시에 受容·推進할 수 있는 절충적 성격을 띠 수밖에 없었다.

鄧小平體制的 軍事原則이 지니는 절충적 성격은 1981年 6月 中共 第11期 6中全會에서 채택된 “建國以來 若干의 歷史的 問題에 관한 決議”에서 표면화되었다. 당시 鄧小平은 毛澤東의 軍事理論을 評價하면서,

“미사일과 核武器가 發展한 새로운 歷史的 條件下에 있다는 것을 理由로 毛澤東主席의 軍事理論을 경시하거나 비난해서는 안된다. 武器體系가 변하고 戰爭樣相이 변한다 하더라도 毛澤東主席의 軍事原理는 영원히 견지되어야 한다. ……(中略)……

世代를 거듭할수록 毛澤東主席의 軍事理論을 행하고 後世에 傳達하면, 미래의 침략전쟁에 대응하는 전쟁에서 相對的으로 열세한 장비로 우세한 장비의 적에 대하여 승리를 쟁취할 수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外國을 경시해서는 안된다. 外國의 軍事科學技術을 연구하여 外國의 장점을 흡수함으로써 自身의 새로운 것을 創出·發展시키는 것도 重要하다.”⁴²⁾

41) Thomas W. Robinson, “Chinese Military Modernizations in the 1980s,” *The China Quarterly*, no. 92 (June 1982), pp. 231~252.

42) 鄧小平, *op. cit.*, pp. 255~274.

라고 말했는데, 이는 그가 革命化와 現代化의 딜레마를 兩者에 대한 동시 추구라는 방식으로 극복하고 있음을 시사해 준다. 즉, 人民戰爭論에 입각하여 現代戰을 수행하되 戰爭手段은 첨단병기에 의존한다는 것이다.

鄧小平體制的 軍事原則을 새로운 戰略概念으로 구체화시킨 것이 所謂 ‘現代的 條件下에서의 人民戰爭戰略’이다.⁴³⁾ 이 戰略概念은 그후 中共軍 總參謀長 楊得志의 ‘協同作戰能力培養論’⁴⁴⁾과 中央軍事委員會 常務副主席 楊尙昆의 ‘即時對應能力強化論’⁴⁵⁾에 의하여 골격이 다듬어짐으로써 그 내용이 보다 확연해졌다. ‘現代的 條件下에서의 人民戰爭戰略’을 요약하면, 中共軍은 思想的으로 毛澤東의 軍事理念을 充分히 습득하여 軍內紀律을 바로잡고 사기를 진작시키는 한편 現代的 戰爭狀況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하여 机动적인 戰略·戰術下에서 現代化된 武器와 裝備로 武裝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現代的 條件下에서의 人民戰爭戰略’으로 특징지워지는 鄧小平體制的 軍事原則은 毛澤東執權期에 相互對立的인 概念으로 간주되었던 軍의 物質的 要素와 人間的 要素에 동등한 중요성을 부여하는 개념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國防現代化를 추진함에 있어서는 軍의 革命性보다 現代化된 專門性을 강조하고 있는 관계로 物質的 要素의 發展을 더 절실한 과제로 인식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아울러 그렇기 때문에 ‘現代的 條件下에서의 人民戰爭戰略’은 鄧小平體制가 추구하는 궁극적인 戰略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戰略은 國防現代化 推進過程에서 하나의 타협점으로 제시된 과도적 戰略概念이라고 評價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43) 이 戰略概念은 1981年 7月 中共軍事科學院 院長 宋時轍의 論文, “毛澤東의 軍事思想은 我軍의 勝利指針”에서 처음으로 제시되었으며, 그후 黨中央軍事委員會에 의하여 公式的으로 승인되었다. 金東成, *op. cit.*, p. 173 參照.

44) “楊得志發表談話號召全軍進一步發揚優良傳統, 建設強大的正規化現代化革命軍隊,” 「人民日報」, 1983年 7月 28日; *Ibid.*, p. 174에서 재인용.

45) 楊尙昆, “建設強大的革命化現代化的軍隊,” 「紅旗」, 15期, 1982年, p. 8; *Ibid.*, p. 174에서 재인용.

3. 國防의 現代化

鄧小平體制가 推進하고 있는 國防現代化의 主要點은 이전의 낙후된 軍裝備와 武器 및 軍事技術의 수준을 核戰·現代戰에 適切히 대응할 수 있는 수준까지 끌어 올리는 것이다. 즉, 軍의 '現代의 條件에 부합할 수 있는' 能力提高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鄧小平體制는 核武器를 비롯한 첨단무기의 開發 및 製作, 武器와 裝備體系의 양적·질적 향상, 국방산업체제의 現代化 등과 관련된 세부정책을 수립·집행하고 있다.⁴⁶⁾

우선 陸軍에 관하여는 毛澤東의 遊擊戰術의 영향력을 배제시킨다는 정책적 의도하에 陸軍의 主力을 보병부대에서 전차 및 포병부대로 전환시키고 있다. 이미 T-62 型과 T-69 型 戰車의 量產體制를 구축하였으며 152m/m 자주포와 122m/m 자주포 등을 실전배치하여 포병의 자동화·자주포화를 실현시켰다. 또한 陸軍은 體制轉換과 함께 全軍長距離地下通信網 開設, 기계화부대편성, 防空시스템 구축 등의 계획을 실행에 옮김으로써 질적 향상을 꾀하고 있다.⁴⁷⁾

海軍에 있어서는 彈道미사일 탑재 원자력잠수함(SSBM) 및 통상형 공격잠수함을 이미 제조·배치하였으며 소형항공모함 건조계획과 航洋性을 보유한 신형함정 건조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양적 증대를 기하고 있다. 또한 다른 한편으로는 訓練을 強化함으로써 대잠수함전 수행능력을 향상시키고 있다.⁴⁸⁾

1965 年에 이미 MIG-19 기의 대량생산체제를 갖춘 바 있는 空軍은 과거의 경험을 살려 主力機인 F-7(MIG-21)과 強-5 型 전투기를 대량으로 실전배치시키는 데에 성공하였다. 또한 더 나아가 英國과 美國으로부터

46) 朴東碩, "中共國防現代化의 顛末," 「中國研究」, 通卷 9, 1985 年, pp. 5~18.

47) 任東俊, "中共의 國防現代化 實態," 「共產圈研究」, 1986 年 12 月號, p. 46.

48) *Ibid.*, p. 47.

최신기술을 도입함으로써 MIG-21의 개량형인 F-8 機의 전투력을 제고시키는 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⁴⁹⁾

한편, 核戰力の 提高와 관련하여서는, 1981年 潜在的 다탄두미사일(MIRV)의 시험발사를 성공시킨 데에 이어 DF-5 型(사정거리 13,000km)와 DF-4 型(사정거리 7,000km) 등 두가지 타입의 ICBM 을 실전배치하는데 성공하였다.⁵⁰⁾ 더우기 1980年과 1982年 사이에는 3개의 실험용 위공위성을 발사함으로써 첨단전자분야에서도 획기적인 기술발전을 이룩하였다.⁵¹⁾

이상과 같은 일련의 國防體系現代化努力은 기본적으로 '自力更生'의 원칙에 입각하여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필요에 따라서는 西方先進國으로부터 武器·裝備 및 技術을 도입하기도 한다.⁵²⁾ 또한 개발된 무기와 장비를 제 3세계국가에 수출함으로써 軍備現代化에 따라 가중되는 재원확보의 부담을 다소나마 감소시키고 있다.

結論的으로 말하면, 鄧小平體制의 國防現代化政策은 근본적으로 '現代의 條件下에서의 人民戰爭戰略'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추진되는 것이다. 이는 곧 中共軍이 國家防衛라는 본연의 의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제반여건을 마련해 줌으로써 中共의 戰略의 地位를 強大國 水準으로까지 끌어올리기 위한 것이다. 또한 그럼으로써 軍의 政治的 介入可能性을 制限한다는 鄧小平의 정책적 의도가 반영된 것이라고 풀이된다.

49) *Ibid.*, p. 48.

50) 柳柏成, "中共核武器之發展," 「匪情月報」, 第26卷 第8期(1984年2月), pp. 63~68.

51) 보다 자세한 내용은, William T. Tow, "Science and Technology in China's Defense," *Problems of Communism* (Jul.~Aug. 1985), pp. 15~31 參照.

52) 보다 자세한 내용은, 任東俊, *op. cit.*, p. 48 參照.

V. 結 言

以上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中共의 人民解放軍은 鄧小平體制가 推進하고 있는 軍事專門化政策을 통하여 過去の 革命軍에서 現代的 意味의 國防軍으로 變貌해 가고 있다. 그들은 作令의 政策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면 될수록 以前の 1人獨裁體制的 政治의 道具라는 否定的 이미지에서 탈피하여 國家防衛라는 本연의 의무에 충실하는 強力한 軍隊로 成長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그만큼 軍은 黨과 政府의 統制下에서 政治에의 介入을 자제하게 될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國內秩序에 대한 軍部の 威脅可能性은 현저하게 줄어들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中共의 政治와 軍部間의 力學關係의 將來를 樂觀하기에는 아직 이른 감이 없지 않다. 비록 現在까지의 推進過程을 考察해 볼 경우 여러 가지 측면에서 肯定的인 結論을 도출할 수 있으나, 여전히 몇가지 問題點이 露呈되어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

첫째로 지적할 수 있는 問題點은 軍權의 移讓과 新進改革勢力의 軍權確保問題이다. 1987年을 기점으로 軍部の 主要高位職에 新進改革勢力이 대거 등용됐다는 것은 周知의 事實이다. 그러나 高齡의 鄧小平이 아직까지도 黨과 國家의 中央軍事委員會 主席職을 맡고 있다는 점은 軍權의 移讓이 확고하게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事實을 반영하며, 또한 黨과 軍內部에 몇몇의 保守的 軍事元老들이 제한적으로나마 政治의 影響力을 行使하고 있는 점도 軍權移讓의 限界로 작용할 것이다. 더우기 軍權移讓이 순조롭게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趙·李體制로 불리우는 改革主體勢力이 軍高位層의 협조하에 효율적으로 軍을 統制할 수 있게 될 지는 미지수이다. 결국 改革勢力에 의한 확고한 軍權移讓·確保 여부가 軍事專門化 및 軍의 政治的 影響力 制限問題의 關鍵이 되리라 사료된다.

둘째로 지적할 수 있는 問題點은 國防現代化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決

定的인 變數로 作用하는 財源調達問題이다. 國防現代化는 다른 부문과는 달리 막대한 자본 및 기술의 축적을 요하는 部門이다. 그러나 中共은 現在 農業·工業·科學技術의 現代化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관계로 國防의 現代化를 소홀히 취급하고 있는 감이 없지 않으며, 그나마도 서구로부터의 무리한 資本과 技術導入으로 對內外的인 經濟的 어려움에 처해 있다. 따라 이러한 어려움이 해결되지 않는 한 國防現代化는 限界의 이 될 가능성이 많다고 판단된다.

세번째 問題點은 지나친 減軍政策과 位階的 組織化에 따른 軍內部的 반발과 기강해이문제이다. 中共에서는 現在, 강제적인 兵力縮少와 專門化로 인해 軍部가 지니 왔던 多樣한 對社會的 機能을 상실함에 따라 軍은 상대적인 위축을 느끼고 있다. 따라서 비록 軍事教育·訓練이 강화하여 軍의 質的 向上을 꾀한다고 할지라도, 軍에 대한 役割制限과 機能縮少가 취해지고 있는 以上, 軍의 사기저하는 자명한 결과이며, 그것은 곧 軍의 專門化를 有名無實하게 만드는 變數가 될 가능성을 다분히 지니고 있다 하겠다.

이러한 問題點들을 綜合的으로 검토해 보면, 모든 것이 鄧小平體制가 推進하고 있는 現代化政策으로 귀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現代化計劃의 달성여부는 改革勢力의 정당성확보와 직결되며, 그것은 바로 軍部에 대한 統制의 공고화 및 軍事專門化의 성공여부를 의미하는 것이 된다. 따라서 現 執權體制가 實行에 옮기고 있는 軍事專門化政策의 展開過程과 結果에 대한 評價는 現代化政策에 대한 分析의 연장선상에서 내려져야 한다고 말할 수 있다.